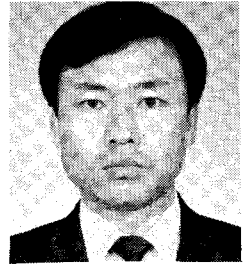


# 갈색산란계 중심의 사육에 따른 채란업계의 변화



강재명  
본회총무부차장

## 1. 서론

“1원”을 생각하는 채란업계에서 하나의 고민이 없어진 셈이다. 사료를 적게 섭취하니, 환우가 용이하여 백색의 경제성이 갈색계보다 좋아 그간 백색계 입추로 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여왔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품종선택을 하는 수순을 밟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분위기는 백색품종 자체가 전멸상태로 계란유통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놓고 말았다.

최근들어 산란계농장에서 사육되는 형태를 보면 갈색계 일색으로 변해가고 백색병아리 자체가 생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채란농장에서 백색계가 없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치 못했을 것이다.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백색 병아리 입추는 거의 중단된 상태로 머지않아 백색계란을 보기가 어렵도록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계란색깔을 물어보면 황색이라고 대답할 시기도 머지 않은것 같다. 그래서 갈색계 일색의 사육에 따른 채란업계의 변화와 이에따른 채란농가

에서 가져야할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2. 갈색 산란계 사육수수 증가 추세

채란산업의 초창기는 백색계 중심의 육종으로 산란율 향상에 모아졌다. 물론 국가별로 백·갈색의 선호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갈색란을 좋아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백색이 갈색보다 산란율이 좋은 편이고 체중이 적어 사료효율이 좋아 백색사육을 많이 해왔던 것이다. 최근 몇년간 한국 채란산업에 있어 특징중의 하나가 백색계가 전멸하고 갈색계가 채란농장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갈색난만 생산된다고 해서 큰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채란시장 자체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백색계가 사라지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 산란율에서 큰 차이없이 오히려 갈색계의 성적이 상회한다는 점이다. 제23회 산란계 경제능력검정 성적을 보면 72주령 산란율이 갈색 82.15%, 백색이 81.45%로 갈색이 0.7% 높았다.

둘째 백색계가 질병에 약한 편으로 나타났다. 육성 기간의 폐사는 백·갈색을 비교해 볼때 큰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산란기간중의 폐사율은 갈색이 백색보다 2% 정도 낮은편으로 전반적으로 질병에 대해 갈색이 강한편으로 나타나고 실제 필드에서 느끼는 정도는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등급별 계란 가격차가 큰것도 갈색계 사육을 선호하는 이유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계란유통 기준이 등급별로 거래가 되고 등급간 가격차가 5원이상을 보이고 있어 특란생산율이 높아야 농가에 수익을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생란소비의 대중을 이루는 것이 가정소비로 가정소비가 대부분 특란에 차지함에 큰알의 가격이 항상 높게형성되고 있다.

표1. 난중 등급별 분포비율(%) (18~72주령)

구분	왕특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
백색	4.48	46.98	33.46	11.63	2.70	0.75
갈색	8.42	50.50	30.27	9.16	1.38	0.27
평균	6.57	48.85	31.77	10.32	2.00	0.49

넷째, 갈색계의 환우가 용이해졌다. 채란산업에 있어 환우는 필요악이 아닐까 생각된다. 과거 갈색계의 강제환우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 반면 백색계는 환우가 용이할 뿐만아니라 1차환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환우를 위해 백색계를 입식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최근에 와서는 갈색계의 환우가 백색과 큰차이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이외에도 사양관리에 있어 갈색계종중에도 사료를 제한급이 하지않고 자유채식으로 가능하게 되

었고 계란가격에서도 백갈색 가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갈색계입식을 더욱 부채질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추세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머지 않아 다시 백색계 입식이 서서히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 3. 갈색계 중심의 사육환경과 강제환우

채란산업에 있어 강제환우는 꼭 필요하다. 강제환우의 목적을 보면 첫째, 특란이상의 계란값이 중란과 소란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 즉 단기간에 무거운 알을 생산하기 위해서 둘째, 계란의 과잉생산으로 계란값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때 생산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방안을 위하여 셋째, 사료가격이 앙등할 경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넷째, 종계의 경우 우수한 종계의 이용년한을 연장하기 위해 강제환우를 실시하게된다.

또한 자연환우에 비해 휴산기간이 짧고 환우후산란율, 수정율, 부화율이 향상됨은 물론 난각질이 개선되어 연란이나 과란의 발생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로 있다. 이런 효과나 목적중에서 채란업계가 환우를 하게되는 가장 큰 이유는 특·대란의 가격차가 큰것과 특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보면 특란생산을 위해 갈색계를 입식하게 된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89년부터 갈색계 중심의 병아리입식이 이루어지면서 '91년도에는 백색병아리입식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특란생산을 위하여 갈색계 입식과 강제환우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특란 과잉생산으로 계란값이 움직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90년 중반부터 백색산란종계

표2. 연도별 백갈색 종계(p.s) 입식현황

단위: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백색	89	15,819	8,502	5,600	13,661	25,115	9,000	3,000	13,200	21,750	7,700	9,000	0	132,347
	90	3,700	21,200	7,300	3,000	20,866	27,809	3,000	5,900	1,100	0	23,920	4,100	121,895
	91	5,200	2,200	0	0	0	0	0	0	1,900				9,300
갈색	89	69,118	31,645	17,875	27,985	30,952	19,400	21,025	1,550	45,000	37,600	31,550	33,201	376,601
	90	25,500	29,800	25,300	17,100	41,536	93,934	24,785	17,900	44,200	80,208	35,084	58,057	493,404
	91	55,151	51,338	44,760	38,050	46,000	39,697	37,299	47,020	24,660	49,629	53,686		487,290

표3. 연도별 백갈색 실용계(c.c) 입식현황

단위:천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백색	89	318	696	657	653	672	506	311	248	259	232	222	289	5,063
	90	293	279	338	327	345	433	427	377	250	317	310	316	4,012
	91	434	238	292	104	30	0	0	0	0	0			1,098
갈색	89	1,069	1,330	1,259	1,195	1,276	1,166	1,111	1,288	1,299	1,052	1,186	1,209	14,440
	90	1,315	1,266	1,557	1,477	1,736	1,610	1,837	1,691	1,551	1,717	1,626	1,459	18,842
	91	1,646	1,401	1,454	1,217	1,389	1,207	1,238	1,722	1,566	1,717			14,557

\* 양계협회 표본 7개 부화장 실적임

(p.s) 입식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면서 '91년 3월 이후는 완전 중단된 상태이다.

아울러 표3의 백색 실용계 입식도 '91년 6월 이후부터는 완전 중단된 상태로 길게 잡아 '93년부터는 백색란의 생산도 완전 중단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92년도 갈색계 입식의 여건에서 예전과 같이 강제환우를 해야할것인가. 아니면 안할 것 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요구된다.

#### 4. 결론(향후전망)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갈색계 일색의 입식으로 인한 향후 계란가격 변화를 예상해보면 과거 특란과 경란가격차가 30~40원까지 벌어지는 등 중량에 비해 잔알의 가격이 형편없었던 것에 비하면 갈색란의 생산과 더불어 큰알의 생산비율이 높아지면서 특·경란의 가격차가 20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여겨지며 오히려 큰알 생산량이 많아지는 것이 경제성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특히 왕특란이라고 일컬어지는 70g이상의 생산

율이 높은것은 닭에게 무리가 따라 폐율이 높아져 농가에게 손해를 미칠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제환우를 실시하는 것은 농장자체에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전체 계란가격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큰알의 가격이 높지 않아 환우의 근본목적에 못미치기 때문에 환우하는 기간에 신계군으로 후보계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다. 갈색계 중심으로 백색란생산은 점점줄고 갈색란은 점점 증가하면서 특란생산비율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표4에서 보면 '91년까지 특대란 가격차를 보면(10개기준) '89년 73원, '90년 83원, '91년 '92원으로 가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91년 9월이후는 50원 내외로 가격폭이 좁혀지고 있다. 특란생산율이 높은 갈색계 입식 및 강제환우를 선호하게 된것 같다. '92년도에는 이러한 분위기로 인하여 등급간 가격폭이 더욱 좁혀지면서 환우를 해서 특란율을 높이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같아 조기에 노계도태를 실시하고 신계군으로 입식해나가는 것이 계란가격안정을 위한 최선책이라 여겨진다.

표4. 연도별 특대란 가격 비교표

단위:10개당/원

연도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가격차
		89	특란	599	620	654	728	654	570	602	606	704	635	649	
	대란	569	590	629	670	594	495	492	455	567	549	590	590	566	
90	특란	637	630	652	699	730	675	627	653	787	765	648	642	679	83
	대란	581	560	597	645	640	608	488	499	683	697	580	572	596	
91	특란	613	627	550	512	555	481	571	611	688	545	553		573	92
	대란	539	523	475	437	449	399	455	493	524	485	514		481	